광주·전남 大해부

<제2부> 문화도시 광주

# “도심 전역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자”

❹ 문화수도 조성 전문가들의 제언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이 본격 착수된지 6년째를 맞는다. 문화·도시건축 전문가들은 이제 광주 전역에 문화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문화전당 건립에만 매몰돼서는 문화수도로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소규모 문화거점 시설을 세워 전당과 연계해 문화파급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또 문화전당을 비롯해 문화수도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공사가 진행중인 옛 남도예술회관 일대 전경. 이 부지에는 아시아 예술극장과 문화창조원 건물이 들어선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문화수도 걸맞는 도시환경 조성 급선무

◇**천득염 전남대건축학부 교수**=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6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이 문화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문화전당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수도에 걸맞는 문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삶도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도심환경이 여느 도시와 차별되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모델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아쉽게도 광주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맞춰 건물, 거리 환경 등 손꼽을 만한 도시 변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나치게 문화전당 건립에 매달리다 보니 광주의 과거와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들도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 시민들이 추억과 감성이 서린 옛 공간들을 문화적인 거점으로 되살려 문화전당과 상호 연계하면서 도시에 문화가 확산되는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시아 문화도시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중장기 문화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시급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광주시민들의 일상 공간과 문화 속에서 문화콘텐츠의 원형을 찾아 자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과 관련, 기능적인 수단만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자료화하고 연구하는 것이 선행과제다.

현재 각 대학과 단체들이 아카데미 형태 등을 통해 문화인력 양성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단기적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사·중복 과정도 많아 차별성도 없다.

중장기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추

진하고 교육기관간 연계강화, 아카데미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인력양성 시스템을 종합진단할 필요가 있다.

또 도시의 역사성이 담겨 있는 근현대 문화공간(골목길, 영화관, 공공기관 등)을 창조적으로 재생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도심 개발과정에서 사라진 공간들도 돌아봐야 한다.

## 문화전당 콘텐츠 아시아에 매몰되선 안돼

◇**김홍희 경기도립미술관장**=문화전당을 채울 콘텐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 자산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콘텐츠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가치’를 표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점검해야 할 것 같다. 이미 아시아는 미술계에서 쓰지 않는 용어다. 올드 패러다임이다.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시아 문화자원의 발굴을 위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점검이 필요하다.

동서양을 따로 구별하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전당의 콘텐

츠를 채우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일본 후쿠오카 미술관이 ‘아시아’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교훈을 살펴봐야 한다. 또 현재 문화전당이 담으려는 아시아의 문화자산이 과거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의 역동적인 문화적 활동과 그 결과물도 눈여겨 봐야 한다.

## 도심 옛건물 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을

◇**박홍근 건축사**=문화전당이 ‘분수효과’를 창출하는 거점이 됐으면 한다. 아래부터 문화가 솟구쳐 도시 전체에 퍼지는 분수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또 전당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간을 조성해 도시전체로 조성효과가 미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전당은 주변부와 단절된 섬이 되고 말 것이다.

도심 재개발도 무조건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애환과 추억이 있는 장소를 되살리되,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도심 옛건물들의 현황을 파악

해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또 문화전당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광주가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문화향유 수준은 낮다. 문화전당을 지어놓고 막상 시민들이 그 공간의 콘텐츠와 문화를 향유하지 못한다면 죽은 건물이다.

## 시민 지지·참여 끌어낼 방안 찾아내야

◇**강연균 화백**=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부지내 옛 도청 별관 철거논란이 1년3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지나치게 갈등만이 부각돼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문화수도 조성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시민들은 이 사업이 과연 잘 될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도 갖는 게 사실이다.

정부나 시민 사회단체, 어느 누구도 광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책임지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업이 관(官)주도로 전개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시민과의 소통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정작 광주를 위한 사업인데도 시민들은 배제되고 있다. 더구나 문화전당 건립이 2014년으로 늦춰지고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과정에서 구 도심은 하루가 다르게 붕괴하고 있다.

## 지역사회 협의체 만들어 조성사업 이끌길

◇**정준모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지지와 이해가 절실하다. 지역사회에서 문화수도사업에 대한 이해가 갈리는 마당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정권이 바뀌어 문화수도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책임을 방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뒤틀리고 있다고 본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치적인 협상을 벌이거나, 밀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에서 문화수도 관

련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들도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가 이뤄질 경우 지지하고 참여하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문화예술인들이 광주에 머물면서 작업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